



코로나19 이후 체육철학의 생존전략*

이학준**

The Survival Strategy of the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after COVID-19

Lee, Hak-Jun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체육철학의 생존전략을 탐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체육철학은 확연히 다를 것이다.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체육철학은 도태될 수 있다. 따라서 체육철학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차원의 생존전략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온라인 활용한 교수법 터득, 원전 읽기와 논증적 글쓰기, 사고력과 토론 능력 등이다. 둘째, 사회적 차원의 생존전략이다. 연구영역 확장, 학회지 명칭 변경, 교과목 개발, 전문연구자 양성 등이다. 물론 앞에서 제안한 생존전략은 외적 변화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적 변화이다. 체육철학이 체육학에서 쟁점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학문적 성과의 현실적 기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체육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 비판과 성찰, 문제 제기과 방향 제시 등을 통하여 체육철학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 주제어 : 코로나19, 체육철학, 생존전략, 한국체육철학회, e스포츠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urvival strategy of the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after COVID-19. The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before and after COVID-19 will be significantly different. Failure to respond to rapid changes can lead to possible elimination. Therefore, it is logical to seek changes in order to preserve the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Literature research was undertaken for this stud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s the survival strategy of the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starts at the individual level. This includes strengthening individuals digital literacy, online teaching methods, original text readings, reading argumentative writing, and improving thinking and discussion skills. Second is the survival strategy of the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at the social level. At the social level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earch area of e-sports philosophy has changed the journal's name to "Philosophy of Movement", developed courses related to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and trained subsequent generations of professional researchers. The survival strategy proposed earlier is that of an external change. What is truly essential is internal change. Issues should be led so that the majors' research can lead those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In addition, realistic contributions to academic achievements, listening to voices in the field, criticism, reflection, raising problems and suggesting directions, should find their place in the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 Key words : COVID-19,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survival strategy, korean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society, e-sports

* 이 논문은 2020년 제58회 한국체육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하고 보완하였음.

** 단독 저자,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sportia2000@hanmail.net / Daegu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 Special Education, Research Professor

I. 서론

한국체육철학회는 1991년 봄에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라는 학회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당시 스포츠철학 전공자가 많지 않아서 무용철학(무용전공자) 전공자들과 공동으로 학회를 구성하였다. 초대 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김종선 교수가 임명되었다. 그때부터 국내에서 스포츠철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형성되었다. 1993년 4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총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김종선 교수가 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1995년 4월 단국대학교 열린 제5회 총회에서 연세대학교 김영환 교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1995년 8월부터 《움직임의 철학 :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정식으로 등록하였다.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명실상부한 학회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www.sportkorea.net/kpssd). 《움직임의 철학 :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지》는 1992년 5월 창간호를 내고, 1994년에 2권을 발행하였다. 이후 2004년까지 1년에 2회 발행하였고, 논문이 늘어나면서 2005년부터 1년에 3회 발행하였다. 2006년부터는 1년에 4회로 발행 횟수를 늘렸다.

학회지는 2003년 12월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6년 2월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2018년부터 온라인 저널로 출판하여 발간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에서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학회지는 연 4회 종이 책자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보내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출판 비용과 우편 비용의 증가로 학회지 게재비 증가를 가져왔다. 학회지 발행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온라인 출판이다.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접속해서 학회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거의 책자형 학회지에 익숙했던 연구자에게 불만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적어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었다. 출판 비용을 절약하여 학회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9월 현재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는 연간 4회 평균 52건 총 1,047건의 연구 결과물이 발표되었다. 학회지 명칭은 처음에는 《움직임의 철학 :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지》에서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로 변경되었다. 연구영역은 체육철학, 무용철학, 무도철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체육철학의 생존 전략을 탐구하는 데 필요하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얻어 미래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역사는 연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 교훈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 지혜를 얻기 위한 공부이다. 체육사를 공부하는 것과 같이 체육철학 역시 한국체육철학사를 공부함으로써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반성과 성찰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과거 연구에 대한 반성은 미래를 향해 가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가 필요한 것은 한국체육철학회가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체육철학(회)의 발전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권오륜·김동규, 2009; 권오륜, 2019; 이정식, 2013).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철학이 시대와 함께하는 교과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한 도전은 논리적 사고 훈련을 위한 글쓰기 교육, 도덕적 판단의 근거 마련을 위한 스포츠윤리교육 그리고 인간성 함양을 위한 철학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교육 등이다(이학준, 2008: 35). 체육계열 학과의 교과목은 외적 유용성을 보여주는 체력과 건강, 경기력 등과 더불어 내적 유용성에 해당하는 생각의 힘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더 발전을 위한 방향을 탐구하려는 것이다. 철학은 나침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체육철학은 체육학의 방향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영역이다. 나침반은 배가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바로 잡는 데 유용하다. 나침반이 없다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낭비를 막고 최소한의 노력과 경제적 비용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국내에서 1992년에 시작한 체육철학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외에도 이 연구는 한국체육철학회의 생존전략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체육철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다(김동규, 2002, 2007; 송형석, 2012, 2015; 이기범, 2007; 이동현·임재구, 2021; 이학준, 2021; 황인규·권오륜, 2021). 코로나19와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계산적 사고가 아닌 숙고적 사유를 통해서 체육철학, 한국체육철학회의 생존전략을 탐구하기 위하여 이 연구가 필요하다. 어떻게 한국체육철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존전략으로 학문적 생태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체육학 관련 등재지(후보지) 학술지가 많이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학회지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논문 투고가 많지 않아 투고 기간을 연장하여 발행 시간을 늦추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것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체육철학의 생존전략을 탐구하는 데 있다. 단순히 과거의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차원에서 미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따라서 논의 순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를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체육철학의 생존전략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이 연구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체육철학의 개인적 차원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체육철학의 사회적 차원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등이다.

II.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하였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한자리에서 두 자리로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방역 대책이 마련되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확진자를 초기에 찾아냈고 전과경로를 추적해서 방역과 전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직면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4인 이상 금지 명령으로 음식점은 오후 9시 이전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다. 국가의 방역 정책으로 자영업은 위기에 직면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신 접종률 70%를 넘어서 영업시간, 4인 이상 모임 금지 등과 같은 규제가 풀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육계 역시 무관중 경기와 헬스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스포츠산업에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인식이 건강, 안전, 행복에 중점을 두고 생활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중요성에 관하여 간과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공간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물리적 공간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공간 개념이 확대되어 가상공간이 주 활동 무대가 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인 이상 금지 등 집회와 모임을 금지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의 가상공간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가상공간은 많은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나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비대면(언택트) 문화가 일상이 되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만남과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간 단절, 대륙과 대륙의 단절, 특정 지역과 지역 간 단절, 소통과 연결 자체가 위험인 시대로 변하였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비대면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통적 기반의 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교육은 비대면 수업(사이버 강의)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것이며, 산업 분야에서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것이다(윤옥한, 2020: 26).

둘째, e스포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처럼 코로나19로 스포츠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면서 먹거리와 생존을 위해 신체활동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었다. 인간이 걷기를 통하여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머리를 활용하여 사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노동이라는 신체활동만으로 살 수가 없어서 호모 루덴스라는 놀이하는 인간이 출현하게 되었다. 놀이는 임의적인 규칙을 정해서 하는 신체활동이다. 이러한 신체활동은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으로서 체육이 교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일상생활에서는 기분 전환을 위한 신체활동으로써 스포츠가 출현한 것이다. 신체활동의 일련의 변화는 인류의 생존 과정과 맞아떨어진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체활동이 가상공간 또는 VR, AR로 확대된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e스포츠이다.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e스포츠는 사회적 거리 두기, 모임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적 신체활동이다.

셋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에서 생존 체력을 목적으로 한 운동으로 변화되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었다. 건강과 안전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었다. 체육 또한 건강이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온라인 체육수업도 건강과 보건, 안전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홈트가 유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사람들이 운동하는 이유가 건강과 다이어트의 목적이 있었다면 코로나19로 생존 체력에 관한 관심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운동을 통한 면역력 강화가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동을 한다. 단순히 생존 체력을 강화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를 운동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 집과 회사 위주의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운동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집단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 위주의 운동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 등산을 들 수 있다. 높지 않은 산을 단독 산행하고 등산 후기를 남기는 것이 일상의 작은 행복으로 유행하고 있다.

넷째, 경기장 중심의 스포츠문화가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스포츠문화로 전환되었다. 경기장보다 디지털 플랫폼이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면서 경기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포츠는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장의 양식은 변화되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스포츠를 실시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학문 생태계의 변화이다(김동규·김현수, 2012; 오현택, 2007). 1991년부터 시작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발행지원사업과 1998년 학술지 등재 제도는 학술생태계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었다. 더욱이 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학술지 등재 제도 개선 방안'은 사회학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학문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지만 학문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김세현·박수호·유승호, 2015).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학문 생태계의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학술대회는 대부분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학회지는 투고논문이 부족하여 정시에 학회지 발행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우리 학회 현실을 봐도 학술대회 규모와 횟수가 줄어들었다. KCI 등재지(등재후보지)가 많아지면서 안정적으로 투고자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학회 회원이 적고 대학원 전공생이 사라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 연구자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소수 학자의 학회지

로 변화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학회지는 ‘그들만의 학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1년에 4회 발행하는 현 상태에 투고논문이 줄어들어 발행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이후 체육철학의 생존전략에 관한 논의가 요구된다.

III. 코로나19 이후 체육철학의 생존전략

코로나19 이후 체육철학의 생존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를 모색하는 일이다. 변화는 질적변화와 양적변화를 말할 수 있다. 질적변화는 개인적 차원의 변화로 연구자들의 노력이 따라주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한순간에 변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내공이 쌓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므로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외형적 변화이다. 외형적 변화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제도나 규칙을 바꾸는 일이다. 이 일은 학회 회원의 합의를 얻을 때 쉽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는 몇 가지 변화를 위한 것들을 제안하였다.

1. 개인적 차원

코로나19 이후 체육철학의 개인적 차원의 생존전략은 연구자 개인의 질적변화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연구자의 연구 역량과 디지털 역량이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온라인 활용 교수 방법론 터득, 원전 읽기와 논증적 글쓰기, 사고력과 토론 능력 등이 있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초연결, 융복합),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7가지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디지털 데이터의 구별 활용 능력, 디지털 콘텐츠 활용 능력,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디지털에 기반을 둔 콘텐츠 제작 기술 능력,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활용 능력, 디지털 감수성 등이다(윤옥한, 2020: 29-30).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는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생활화되었기에 늦은 감이 있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졌다. 우리는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왜냐하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수업방식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했다. 그동안 우리는 온라인 수업을 먼 미래에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그 시간을 단축하였다. 온라인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교수는 준비 없이 수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학생들도 힘들지만 강의하는 교수 역시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여 제대로 학술대회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그것은 디지털 역량 부족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한국체육철학회와 체육철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연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온라인 교수 방법론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정상이 되면서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교수 방법이 요구된다. 물론 4학기 이상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교수 방법론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교수 방법론 습득은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새로운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것이 되었다. 사이버대학교, 사이버 수업에서 사용하던 교수법은 당장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교수법이 되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결합한 블렌디드수업, ZOOM을 활용한 수업, 플립러닝, 딥러닝 등에 관한 다양한 교수법을 습득하고 학생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면대면 수업이 아니기에 집중력이 떨어지며 학력 격차가 나고 있다. 따라서 체육철학을 강의하는 교수는 다양한 온라인 교수 방법을 습득하고 최적의 교수법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에듀테인먼트는 학습에 오락을 가미한 것이다. 기존의 체육철학 수업은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것은 교과 탓이 아니라 교수의 몫이다. 재미있게 강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그동안 없지는 않았다. 영화로 배우는 체육철학(이학준, 2012), 글쓰기와 토론을 이용한 수업(이학준·권옥동, 2017a, 2017b)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재미없는 이유를 체육철학 교과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다(이학준·권옥동, 2017c). 하지만 체육철학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재미있는 수업이 가능하다. 이 문제의 해법은 교수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연구자와 학회 차원에서 체육철학 교수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그동안 체육철학의 이론적 지식 탐구에만 헌신하였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생의 장단점과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수법을 이용한 강의를 필요하다.

3) 원전 읽기와 논증적 글쓰기

원전 읽기와 논증적 글쓰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체육철학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여전히 요구되는 능력이다. 기초체력이 모든 스포츠에서 기본인 것처럼 연구와 공부의 기초체력은 원전 읽기와 논증적 글쓰기, 그리고 사고력과 토론 능력 등이다. 코로나19 이후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체육철학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원전 읽기와 논증적 글쓰기이다. 기본적으로 체육철학 연구자에게 읽고 쓰기 능력이 제일 필요한 자질이다. 읽어야 철학적 사유가 가능하고 분석과 해석 또한, 가능하다. 철학 공부에서 원전 읽기와 논증적 글쓰기가 제일 중요한 이유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원전을 읽지 않아도 번역본이 존재하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체육철학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원전이 번역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원전 읽기는 원자료를 근거해서 체육철학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체육철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원전 읽기이다. 철학 텍스트가 외국어로 되어 있기에 외국어 습득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독일 철학자의 철학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역량은 독일어 원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번역본을 이용하여 공부할 수도 있다. 번역이 잘 되어 있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처럼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책들이 있다.

따라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희랍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등 외국어 습득은 공부를 잘하는 바탕이다. 이외에도 철학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논증적 글쓰기 역량이 필요하다. 자기 생각을 논리적 일관성과 체계성, 완성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논리 및 논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읽고-생각하고-글쓰기가 하나의 체계이다. 읽어야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글쓰기는 소통이다. 특히 체육철학은 철학적 지식보다는 철학함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 노력 중의 하나가 디지털 토론방을 이용하여 조별로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갖고 수업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과제와 댓글을 달게 하여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사고력과 토론 능력

우리에게 읽고, 쓰는 능력 이외에도 중요한 것은 사고력과 토론 능력이다. 철학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사고력은 풀어쓰면 생각하는 힘이다. 그 힘은 통합하고 소통하며 통찰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논리력 훈련과 토론 수업을 통해 함양할 수 있다.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토론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주장과 그 근거가 타당하기를 생각해봐야 한다. 생각하는 힘은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훈련 방법은 체육철학 수업을 듣고, 토론을 하는 것이다. 토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충분한 공부이다. 토론주제에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토론을 준비하여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다. 토론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다. 설득하기 위해 주장에 필요한 근거를 조사하여 실전 토론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체육철학수업은 토론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고 훈련을 통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토론을 잘하는 것은 깊은 사고력과 토론 능력이다. 우리는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그 주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적 차원

코로나19 이후 체육철학의 사회적 차원의 생존전략은 한국체육철학회와 학회지에 관한 것이다. 학문 생태계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 학회와 투고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방안으로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e스포츠 및 VR, AR 스포츠철학, 학회지 명칭을 《움직임의 철학》으로 변경, 체육철학 관련 교과목 개발, 후속세대 전문연구자 양성 등이 있다.

1) 새로운 연구영역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는 급격한 환경변화를 가져왔다. 온라인 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마스크 쓰기, 손 씻기가 일상의 문화가 되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e스포츠의 등장이다. e스포츠 및 VR, AR 스포츠는 비대면 스포츠로 자리를 찾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회 역시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그 변화의 방안으로 e스포츠철학을 연구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e스포츠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e스포츠는 최근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성장해왔다. e스포츠 역사를 확인해도 인간의 기술변화와 함께 스포츠의 양식도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IOC가 도쿄올림픽 개막 전 사상 처음으로 '가상올림픽(Olympic Virtual Series)'을 열었고, 2020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비대면 사회로 e스포츠가 관심이 급증하여 경영과 산업, 심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등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e스포츠 및 VR, AR 스포츠철학에 대한 연구영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물론 e스포츠라는 연구영역을 따로 의도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체육철학 영역에서 다루다가 그 수요가 충분히 많아진 이후 분리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런데도 영역 구분을 통하여 기본 영역을 분류하는 것이 학회지의 전문화와 영역 확장에 필요한 일이다.

과거 우리 학회지의 역사를 살펴보자. 1992년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가 창간할 당시에는 분과

가 따로 없었다. 학회지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학회지 발행에 필요한 논문을 청탁하여 발행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학회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단행하여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를 구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학이나 한국연구재단은 이들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만 업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연구자들은 이들 학회지에 투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체육철학회도 영향을 받았다. 학회지의 분과 영역은 체육철학, 무용철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한국체육철학회 회원이 체육철학자와 무용철학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체육철학 연구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무용철학 논문도 발표가 증가하였다. 그 이후 태권도와 합기도 등 무도철학 논문들의 투고가 늘어났다. 따라서 무도철학이란 분과 영역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온라인 학습, 비대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 가능한 e스포츠 및 VR, AR스포츠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분과 영역에서 e스포츠 및 VR, AR 스포츠를 추가하여 분과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스포츠인 e스포츠가 확산하는 분위기에서 e스포츠철학 연구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기존의 3개 분과에서 4개 분과 영역으로 확장이 요구된다.

2) 학회지 명칭 변경

학회지 명칭은 현재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에서 《움직임의 철학》으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움직임의 철학은 특정 학문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를 움직임 현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문 투고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명칭을 변경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회지 명칭이 투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 학회지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투고논문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연구자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회원이 부족하여 학회지에 다양한 연구자의 논문을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수만이 학회지에 반복적으로 출판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학문 후속세대가 없다. 대학원에서 체육철학을 전공하는 원생이 적다는 것은 체육철학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국내외는 움직임에 관련된 연구자로 철학, 교육철학, 스포츠철학, 무도철학, e스포츠철학, VR스포츠철학, AR스포츠철학, 신체활동 철학, 놀이 철학, 게임철학 등이 있다. 다양한 철학 연구자의 논문 투고를 위해 학회지 명칭을 《움직임의 철학》이라고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 결과 많은 움직임에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될 것이다. 학회지의 명칭은 여러 번 변경되었다. 처음 학회지 명칭은 《움직임의 철학 : 한국스포츠·무용철학회지》였고, 그다음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로 변경되었다. 이를 더 변경하여 글쓴이는 《움직임의 철학》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학제적 연구로서 다양한 인접 학문에서 투고하는 논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체육철학 전공자가 적어 학회에 투고하는 저자의 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접 학문의 다양한 학자가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학회지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학회지의 투고자를 보면 소수의 학자가 매년 게재하고 있어서 ‘소수를 위한 학회지’로 굳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철학 연구자들의 논문 투고가 증가한다면, 학회지에 발표하는 학자 또한 다양화될 수 있다. 철학, 교육철학, 스포츠철학, 무용철학, 무도철학 등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다양한 학문에서 관심을 두고 투고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전공 교과목 개발

이 땅에서 체육철학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이다. 학회창립, 체육철학 교과 개설, 그리고 체육철학 전공 교수 채용이다. 이미 우리는 1992년부터 학회를 창립하고 학회지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되었다. 다음은 체육철학이 체육대학에서 교과로서 강의 되는 것이다. 현재 체육철학은 체육철학, 스포츠철학, 체육사·체육철학 등의 교과목 이름으로 강의하고 있다. 체육 교사 임용시험 과목에 체육사·체육철학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학과에서 교과목을 개설하여 배우고 있다. 하지만 체육 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체육철학 전공 교수 여부에 따라서 개설 여부가 결정된다. 특이한 점은 체육철학보다 그 하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윤리가 더 많이 개설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스포츠윤리가 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스포츠윤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학회 차원에서 통일된 교재 개발이 행해져야 한다. 체육철학은 학문의 특성으로 같은 명칭에도 다른 강의들이 행해진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철학 관련 교재 개발이 요구된다. 학회 차원에서 《스포츠윤리》 교재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학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체육철학 교재 집필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재 전공 교수나 후속세대가 강의할 이론 과목이 축소되고 있다. 이 점에서 먼저 교과목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체육철학 전공자가 강의할 수 있는 교과목은 다른 전공과 비교한다면, 체육원리, 스포츠철학, 체육철학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다양한 인접 교과목을 개발하여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교과목을 살펴보자. 체육원리(체육의 이해, 체육학 개론, 스포츠과학의 이해), 체육철학(체육교육철학, 스포츠철학), 체육교과 논리 및 논술(체육학 글쓰기), 스포츠윤리학, 스포츠인성교육, 스포츠미학, 스포츠문학, 코칭 윤리, 티칭윤리, 연구윤리, 스포츠인문학(스포츠의 인문학적 이해), 스포츠논리학, 스포츠현상학, 스포츠해석학, 스포츠철학연구방법론, 스포츠철학교수방법론, 스포츠실천철학, 무용철학, 무도철학, e스포츠철학, VR, AR 스포츠철학, 스포츠역사철학, 스포츠과학철학, 스포츠문화철학, 스포츠사회철학, 스포츠심리철학, 태권도철학 등이다.

4) 전문연구자 양성

국내에서 학문으로서 체육철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학문 후속세대이다. 연구자들의 세대 간 단절이 발생하면 그 학문은 중단되고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체육철학이 지속해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학문 후속세대의 육성이다. 이들에 의하여 학문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철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로서 체육철학 전문연구자를 양성하여야 한다. 최근 체육철학 전공자의 임용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 그들은 체육철학 전공 교수보다 일반 체육교수로 채용되었다. 표면적으로 교수 임용이 늘었지만, 실제로 전공 교수 임용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체육철학 박사의 취업 기회가 마련되어야 학문 후속세대 전문연구자가 늘어날 수 있다. 현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기존의 전공 교수들이 퇴임하면 다른 전공 교수를 채용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체육철학과 체육사 전공을 포괄하여 ‘스포츠인문학’으로 전공영역을 확장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한국체육학회 16개 분과학문 중에서 체육사, 체육철학은 후속세대 전문연구자를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체육계열 학과에는 3명의 전공 교수가 필요하다. 3명은 최소한의 인원이다. 스포츠인문학(1명), 스포츠사회과학(1명), 스포츠자연과학(1명) 전공 교수가 있어야 한다. 현실은 스포츠자연과학 전공 교수로만 구성된 학과도 있다. 물론 학과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스포츠인문학, 스포츠사회과학 전공 교수가 구성되어 있어야 제대로 체육학을 배우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특정 전공으로 학과 교수를 구성하는 것은 학생을 배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립대는 다양한 전공 교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립대는

열악하다. 전공 교수가 1명에 불과한 학과도 있고 대부분은 3명의 전공 교수가 있는 것은 보편적이다. 학생을 생각한다면 학생 비율에 대비한 교수가 충원되어야 한다. 특히 체육사 전공과 체육철학 전공은 교수 채용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체육사 전공과 체육철학 전공자로 분류하여 채용이 있었다면, 이를 개선하여 체육철학과 체육사 전공을 포괄하여 ‘스포츠인문학’ 전공 교수로 영역을 확장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이학준, 2014).

IV. 결론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 체육철학의 생존전략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생각은 전문가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우리는 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행운조차도 얻을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준비 없이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게 됐다. 빠른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변화를 빨리 수용하여 자신의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다면 피해를 볼 수 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 변화는 외적 변화와 질적변화가 가능하다. 질적변화는 개인적 차원의 생존 전략이며 외적 변화로 사회적 차원의 생존전략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체육철학의 생존전략에 대하여 숙고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생존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처럼 대면 강의와 학술대회를 하기는 어렵다. 환경이 변화하면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생존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체육철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 징조는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학습환경이 변화되었다. 그동안 교실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었다면 이제 온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이 일상이 되어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돌파구를 헤쳐나갈 방안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체육철학은 먼대면 수업이 필요함에도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디지털 역량을 통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체육철학의 생존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차원의 생존전략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온라인 활용 교수 방법론 터득, 원전 읽기와 논증적 글쓰기, 사고력과 토론 능력 등이 있다. 이러한 능력은 온라인 문화가 새로운 표준으로 되기에 필요한 것들이다. 둘째, 사회적 차원의 생존전략이다.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의 도전, 학회지 명칭 변경, 교과목 개발, 전문연구자 양성 등이다. 물론 앞에서 제안한 생존전략은 외적 변화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글쓴이의 주관적 제안이라는 한계도 있다. 학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내적 변화이다. 체육철학이 체육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쟁점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학문적 성과의 현실적 기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체육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 비판과 성찰, 문제 제기와 방향 제시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권오륜(2019). 한국 체육철학의 현실 인식과 미래에 관한 일 고찰.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7(2), 19-31.
- 권오륜, 김동규(2009). 한국 체육현실의 문화적 고찰.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7(2), 287-300.
- 김동규(2002). 체육학에 있어서 인문학 연구의 자생적 패러다임.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0(2), 173-192.
- 김동규(2007). 체육인문학의 메가트렌드와 실천문제.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5(4), 135-156.
- 김동규, 김현수(2012). 체육학 지식 생태계의 구조와 통섭.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0(1), 101-122.
- 김세현, 박수호, 유승호(2015). 연구자-학술지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본 학술 생태계의 불평등 현상: 한국 사회학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19(3), 319-358.
- 송형석(2012). 체육학 발전방향 소통의 관찰.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0(2), 69-84.
- 송형석(2015). 체육철학의 연구동향: <한국체육철학회지>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6(1), 1-14.
- 오현택(2007). 체육철학의 학문적 조건.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5(4), 157-170.
- 윤옥한(2020). 코로나19 이후 교양 교육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14(4), 25-34.
- 이기범(2007). 테크놀로지 시대의 체육철학의 역할.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5(1), 127-148.
- 이동현, 임재구(2021).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포츠의 사회, 철학적 함의. **한국스포츠학회지**, 19(1), 291-301.
- 이정식(2013). 핀란드 교육혁신의 체육철학적 함의와 체육교육의 철학적 방향 탐색.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1(3), 127-144.
- 이학준(2008). 스포츠철학의 새로운 도전과 길 찾기. **한국체육학회지**, 47(1), 35-44.
- 이학준(2012). 영화로 배우는 스포츠철학수업의 가능성과 과제.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0(2), 19-32.
- 이학준(2014). 스포츠인문학, 어디로 가야 하나. **스포츠인류학연구**, 9(1), 1-13.
- 이학준(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스포츠의 뉴노멀. **스포츠인류학연구**, 16(1), 21-36.
- 이학준, 권옥동(2017a). 글쓰기를 활용한 스포츠철학의 교수방법.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5(1), 43-57.
- 이학준, 권옥동(2017b). 스포츠철학수업에서 토론게임의 효용과 활용.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5(2), 91-105.
- 이학준, 권옥동(2017c). 좋은수업과 보편적 학습설계 그리고 스포츠철학수업.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5(4), 131-149.
- 황인규, 권오륜(2021). 체육학 융합 연구의 의미와 체육철학의 역할.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9(1), 33-44.

* 논문접수일자 : 2021년 11월 04일

* 논문심사일자 : 2021년 11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 2021년 12월 02일